

##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하위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이    최인철  
아주대    광운대    신라대    경남대    아주대    서울대

본 연구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하위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조사 방법을 통해 총 1540명의 응답자들(남 772명 여 768명)에게 12 여성 하위집단들에 대한 따뜻함, 유능성 및 태도(감정온도)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여성 집단들에 대한 유능성과 따뜻함 평가에 근거하여 네 군집(전문직여성, 윤락녀, 가정주부 및 여성상당가 집단)이 얻어 졌다.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비전통적 여성 집단들에 대해 전통적 여성 집단들에 대해서보다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 이는 남성들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났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이와는 반대로 가정주부, 여성상당가 및 전문직 여성의 하위집단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었는데 윤락녀 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와 연관되었다. 이러한 후자의 경향은 여성 응답자들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기존의 의미의 성차별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성차별주의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주제어 :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여성 하위집단, 태도

최근 들어 Glick과 Fiske(Fiske, Cuddy, Glick & Xu, 2002; Glick & Fiske, 1996, 2001a, b) 는 사람들이 소수 집단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일방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고 부정적 신념(예컨대, 유능하지 못하다)과 긍정적 신념(예를 들어, 따뜻하다)이 공존하는 양가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다(양가적 고정관념 이론). 이들은 특히 이러한 양가적 차별주의는 특히 성차별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성차별주의에는 다른 차

별주의와 달리 여성에 대한 권력 경쟁에 기반한 적대주의도 포함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성들이 여성들과 이성관계나 부부관계로 접촉하면서 발전되는 친밀감과 의존성도 함께 내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성들은 여성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친밀감과 의존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Glick과 Fiske(1996)는 이러한 논리에 기반하여 성차별주의를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로 구

김혜숙은 아주대, 안상수는 광운대, 안미영은 신라대, 고재홍은 경남대, 이선은 아주대, 최인철은 서울대 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음.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연구지원(KRF-2003-074-HS0009)으로 이루어진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의 심리과정 :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우호적 성차별주의" 연구 중 일부임.

교신저자 : 김혜숙, (442-7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사회대 심리학과, 전화 : (031) 219-2770,

E-mail : hsk@ajou.ac.kr

분하고, 이 두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를 만들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기존의 의미의 차별주의로서, 여성에 대한 적대적 신념과 감정을 나타낸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덜 능력이 있으며 덜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대에 들어 페미니즘 운동 등 여성들이 지나치게 목소리를 높여 비합리적 요구를 하거나 혹은 남성의 고유 영역을 침범한다고 믿는 성차별주의적 태도를 지칭한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기존의 성차별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성차별주의를 의미한다. 즉,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 대한 온정적이고 긍정적 감정과 신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성별 분업주의적 신념에 기반한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 및 특성에 대한 칭송과 찬양, 그리고 배우자나 이성 파트너로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인식을 포함한다. 따라서 비록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에 대해 나타내는 피상적 감정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해도 여성의 제한된 사회적 역할과 특성만을 기리고 남성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근본적으로 성차별주의적 인식과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기존의 남성 위주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비전통적 여성과 특성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전통적 역할과 특성을 유지하는 여성에 대해 보상을 주고 칭송하는 태도를 취한다 (Glick & Fiske, 1996; Glick, Diebold, Bailey-Werner & Zu, 1997). Glick과 Fiske (1996)는 또한 표면적으로는 정반대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두 차별주의가 실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기존의 성차별주의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채찍과 당근의 보완적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즉,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페미니스트나 미혼모 등의 비전통적 행동과 특성을 가지는 여성들에 대한 적대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고 한편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가정주부나 여성 자원봉사자 등의 보다 전통적 활동과 특성에 대한 호의적이고 보상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기존의 남성 중심의 사회체제 유지를 위한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Jost와 Kay(2005)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적 신념과 태도를 접한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존의 사회체제를 더욱 정당하고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을 실험 연구를 통해 밝혀 Glick과 Fiske(1996)의 이러한 주장을 실증적으로 지지하

였다. 이와 같이 온정적 성차별주의도 실상 여성에 대한 차별주의에 다름이 아니지만, 여성들조차도 이러한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거부적이지 않게 만드는 보다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주의라고 볼 수 있다 (Glick, Fiske, Mladinic 등, 2000). Glick 등 (2000)은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문화 비교 연구를 통해 성차별주의 문화가 높은 사회일수록 여성들이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수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19개국 남녀의 적대적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수를 비교한 이 연구에서 남성들의 성편견이 높은 사회일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있어서의 성 차이는 커졌으나 온정적 성차별 점수의 성 차이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다시 말하면 성편견이 높은 문화일수록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낮은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보이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수는 남성만큼 높아 졌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성차별주의가 높은 문화일수록 남성들이 보다 적대적 성차별 태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문화에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감정을 표방하고 있는 온정적 성차별 태도를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남성 중심 체제를 정당화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기존의 여성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여성들에 대한 보호주의적이고 보상적(rewarding) 태도를 취하도록 하여 기존의 성역할 및 지위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성차별주의지만, 피상적으로는 여성들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따라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취하도록 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감정에 기반되어 있는 여성은 성적으로 더 도덕적이고 더 순수하다'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적 의식과 신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에 대한 더 혹심한 평가와 부정적 태도를 야기할 수 있다. 실상, Abrams, Viki, Masser와 Bohner (2003)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acquaintance rape) 희생자에 대해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경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였다. 즉,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는 여성들이 보다 순수하고 성적으로 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기대와 신념을 가지는데,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stranger rape)의 경우에 비해 여성이 부적절하게 행동하여 강간을 자초하게 되었으리라고 의심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여성의 행동을 더욱 부적절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 강간 피해자에게 더욱 책임을 귀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또 다른 형태의 성차별주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상수, 김혜숙 및 안미영(2005)이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를 한국형으로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표본(성, 연령 및 지역 등을 사용하여 척도의 내용분석과 요인분석(탐색적 및 확증적)을 통해 각각 18개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문항들과 온정적 성차별주의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지배적 남성주의(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므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인식), 적대적 이성관계(즉, 여성은 성적 매력을 이용하여 남성을 통제하려 든다는 인식) 및 경쟁적 성분화(즉,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한 특성과 역할을 가지므로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나 여성들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불평과 요구를 한다는 인식)의 의미를 포함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졌고,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보호적 남성주의(즉, 여성은 출산을 해야 하나 약하니 남성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 친밀한 이성관계(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인식) 및 보완적 성 분화(여성만 남성이 가지지 못하는 좋은 특성 순수함, 성적 도덕성 등을 가지고 또한 남성이 할 수 없는 사회적 역할 자녀 양육, 가사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의미를 포함하는 문항들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기대대로 적대적 성차별주의 점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수가 온전한 상관( $r=.38-.48$ )을 나타내어 이들이 공통적으로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편상관(partial correlation) 분석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기존의 성차별주의 척도들(한국형 남녀 평등의식 검사 : 김양희, 정경아, 2000;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AWS : Spence & Helmreich, 1972) 및 전통적 성차별주의 척도(Old Fashioned Sexism : Swim, Aiken, Hall & Hunter, 1995)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편상관(partial correlation) 분석을 통해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통제하고 난 후에는 이러한 기존의 성차별주의 척도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후자의 결과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기존의 척도에서 측정하는 성차별주의와 다른 새로운 의미의 성차별주의임을 지적해 준다. 마지막으로, 적대적 성차별주의(온정적 성차별주의 통제 후)는 여성에 대한 감정온도(즉, 태도)와 부정 상관을 가지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이와는 반대로 적대적 성차별주의 통제 후 여성에 대한 감정온도와는 정적 상관을, 그리고 여성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의 구성타당도 및 예언타당도를 확인해주었다.

여성들에 대한 서로 다른 형태의 차별주의적 태도를 의미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 하위 집단들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기존의 성별 관계를 부인하거나 벗어나는 여성에 대한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감정과 신념을 포함하므로, 기존의 권위나 체제에 도전적이거나 이탈하는 비전통적 여성 집단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 것이다. 한편,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일반적으로 보다 전통적 성역할에 부합하는 행동과 특성을 나타내는 여성 집단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 Glick 등(1997)은 상관 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직장여성(career women)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한편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가정주부(homemaker)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혹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우리나라 여성 하위 집단들에 대한 태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보다 비전통적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고, 한편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보다 전통적 여성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연관된다는 가정은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의 핵심적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검증되어 있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Glick 등(1997)의 연구는 가정주부와 직장여성의 두 여성 집단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 분석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명제를 보다 다양한 여성 집단을 포함시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여성 하위 집단을 양가적 고정관념 이론(Fiske 등, 2002)의 분석 틀에 의거하여 유능성과 따뜻함의 두 차원에서 구분하고 이러한 다양한 여성 하위 집단들에 대한 태도에 적대적 성차별주의 혹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전통적 여성 고정관념에 부합되는 특성(즉, 따뜻함)을 가지는 여성 집단들을 유능성 평가에 근거하여 더 세분하여 하위 집단들로 구분하고(예를 들어, 가정주부 집단 혹은 여성상당가 집단), 또한 보다 비전통적 특성(즉, 따뜻하지 않음)을 가지는 집단에 대해서도 유능성에 의거하여 하위집단들로 구분하였다(예를 들어, 페미니즘 여성 집단 혹은 미혼모 집단 등). 이와 아울러 본 연구가 이전의 연구들과 구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본 연구에서는 특히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성규범으로부터 이탈되는 듯이 보이는 여성 집단(예를 들어, 미혼모, 레즈비안 등)을 포함시켜 이에 대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태도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특히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이러한 여성 집단에 대해 다른 여성 집단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전통적 여성 집단들보다는 비전통적 행동과 특성을 보이는 여성 집단들에 대해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즉,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비전통적 여성 집단들(즉, 따뜻하지 않은 여성 집단)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보다 전통적인 여성 집단들(예를 들어, 가정주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이거나 혹은 별로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일 것이다(가설 1).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나 전문직 여성들과 같이 기존의 남성 지위에 도전하는 여성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미혼모나 여성 동성애자등 기존의 남성 중심의 성윤리관이나 결혼관 등으로부터 이탈하는 여성 집단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기존의 체제에 순응하는 전통적 여성 집단에 대해 그렇지 않은 여성 집단에 비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것이다. 즉,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전통적인 역할과 특성을 보이는 여성들(예를 들어, 가정주부나 여성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 더욱 칭찬과 찬양의 태

도를 보일 것이지만, 페미니스트나 여성사업가 등의 비전통적 여성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이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가설 2-1). 그러나 한편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또 다른 비전통적 여성 집단들-성적으로 이탈되는 여성들-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페미니스트 등의 비전통적 여성에 대해 보이는 태도와 다를 수 있다. 즉,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여성의 성적 도덕성과 순수성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에 어긋나고 이탈하는 듯이 보이는 비전통적 여성 집단들-미혼모, 레즈비안 등-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가설 2-2).

이러한 연구 가설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여러 여성 집단들에 대해 따뜻함과 유능성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여성 집단들을 온정성과 능력 차원에서 구분되어 지는 하위 집단들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를 통해 사람들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점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수를 구하여, 각각의 성차별주의가 여성 하위 집단들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였다.

성차별주의의 본질 및 그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이론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성 차별 실태가 아직도 매우 심각함을 고려할 때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 우리 사회가 호주제를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엔이 해마다 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GEM : 여성 의원,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남녀소득차 등 여성들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정책에 참여하고 권한을 가지는가에 대한 척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2년 61위/66국, 2003년 63위/70국, 2004년 68/78 국으로 여성들의 지위와 권한이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성폭력범죄율이 전 세계 2-3위에 올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편 호주제 폐지나 여성 고위 공무원 할당제의 채택 등 더디지만 변화의 조짐들도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성차별주의의 유형과 성격 및 그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세밀하게 이해함으로써만이 그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 조사대상자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 연구방법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는 2004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 졌다.

조사대상자는 수도권(서울/경기, 영남 호남 및 충청지역의 4대 권역을 중심으로 전국단위 표집을 통해 총 1540명이 면접 및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설문에 참여하였다. 표 1에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요인별 분포가 나타나 있다. 이들 중 일반인이 715명, 대학생이 423명, 고등학생이 402명이었고, 전체 조사대상자 중 남성이 772명, 그리고 여성이 768명이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729명(47.3%), 영남권 435명(28.2%), 충청권 193명(12.5%), 호남권 183명(11.9%)이다. 그리고 연령별 분포는 16세~78세였으며, 10대 407명(26.4%), 20대 480명(31.2%), 30~40대 422명(27.4%), 50대 이상 231명(15%)이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1.96세였다. 표집방법은 일반인의 경우 다단계 무선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표집이 이루어졌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불비례 층화표본추출과 유의할당 표본추출법(quota sampling)을 혼용하여 표집이 이루어졌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분포

구 분		N	%
성 별	여 성	768	50.1%
	남 성	772	49.9%
지 역 별	수 도 권	729	47.3%
	영 남 권	435	28.2%
	충 청 권	193	12.5%
	호 남 권	183	11.9%
대 상	고등학생	402	26.1%
	대 학 생	423	27.5%
	일 반 인	715	46.4%
경제수준	상	49	3.2%
	중 상	863	56.0%
	중 하	562	36.5%
	하	66	4.3%
연 령	10대	407	26.4%
	20대	480	31.2%
	30대	231	15.0%
	40대	191	12.4%
	50대	188	12.2%
	60대 이상	43	2.8%

### 설문지

총 6쪽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는 여성 집단들에 대한 평가와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 그리고 그 외에 기존의 성차별주의 척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12개 여성 하위집단들 각각에 대해 1) 지위 (“다음 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2) 내집단과의 경쟁 (“다음 각 집단에게 사회적 진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귀하가 속한 집단이 어느 정도로 불리해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3) 유능성 (“다음 집단의 사람들이 얼마나 유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집단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따뜻함 (“다음 집단의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집단의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을 묻는 각 2개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응답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들 각 집단에 대해 5) 태도평가(감정온도 “다음 집단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의 느낌을 온도로 표현하면 몇 도가 되겠습니까?”-0 : 매우 차갑다 99: 매우 따뜻하다)를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12개 여성하위집단들은 사전조사를 통해 그 지위와 경쟁유무에 따라 분류될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이 집단들에 대한 편견이 사회문제가 되는 집단을 선정하였다. 또한 성적으로 이탈된 것으로 지각되는 집단들을 포함하였다. 이들은 가정주부, 이혼녀, 여성상당가, 전문직 여성, 여성 자원봉사자, 식당 아줌마 레즈비언, 여권운동가(페미니스트), 미혼모, 여성 사회사업가, 윤락녀 및 여성 사업가(여사쟁)들이었다

한국형 성차별주의 척도(안상수 등, 2005)는 적대적 성차별주의(HS)척도 18개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S) 척도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문항은 여성에 대한 지배적 남성주의(예를 들어, “여성이 주도권을 갖는 남녀 관계는 결국 불행하다” 등), 경쟁적 성문화(예를 들어, “여성들은 평등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남성 이상의 특별대우를 요구한다”) 및 적대적 이성관계(“여자는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미모를 이용한다”)를 나타내는 문항들이고, 온정적 성차별주의 문항들은 보호적 남성주의(예를 들어, “가벼운 짐일지라도 여성에게 들리기 보다는 남성이 들어 주어야 한다”), 보완적 성문화(“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및 친밀한 이성 관계(“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으

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등을 포함한다. 응답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보다 전통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기존의 성차별주의 척도들(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AWS : Spence & Helmreich, 1972); 근대적 성차별주의 척도(Modern Racism Scale : McConahay, 1986); 전통적 성차별주의 척도(Old Fashioned Sexism : Swim, Aikin, Hall & Hunter, 1995);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 김양희, 정경아, 2000)을 포함시켰다. 전자의 세 척도들은 한국형으로 만들어진 척도가 없어 연구자들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 절차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의 각종 사회 집단들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느끼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란 지시문을 읽은 다음 각자 설문지를 스스로 읽고 응답하였다. 이들 중 글을 읽기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면접자가 읽어 주어 응답을 기록하였다.

### 결 과

####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

먼저, HS와 BS척도 점수 간의 상관은  $r=.46$ 이었으며 신뢰도는 각각  $\alpha=.87$ 과  $\alpha=.88$ 이었다. HS 점수 평균은 2.92( $SD=.56$ )였고, BS 점수 평균은 3.31( $SD=.57$ )이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수 자체에 대한 분석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HS와 BS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별 통계분석 결과를 자세하게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통계 분석 결과는 안상수 등(2005)을 참조하기 바란다. 인구학적 변인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기대했던 대로 HS, BS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점수가 높았는데, 이것은 특히 HS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성 $\times$ HS-BS 상호작용,  $F(1, 1532)=115.04, p<.01$ ). 또한 연령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났는데, 이는 10-20대와 30-50대 간의 차이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연령 차이는 남성 보다는 여성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성 $\times$ 연령 상호작용,

$F(3, 1532)=7.09, p<.001$ ). 달리 말하면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여성에게 있어 주로 나타났고, 남성들에 있어서는 어린 사람들도 성차별주의 점수가 나이 많은 사람들과 그다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적대적 성차별주의 점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수가 온건한 정도의 정적 상관( $r=.46$ )을 보여 준다.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들임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 적대적 성차별주의 척도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수를 통제한 후에도 기존의 전통적 성차별주의 척도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온정적 성차별주의 척도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점수를 통제한 후에 기존의 전통적 성차별주의 척도와 유의미한 편상관(partial correlation)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새로운 형태의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척도임을 보였다(안상수 등, 2005).

#### 여성 집단에 대한 태도 및 평가

12개의 여성 집단에 대한 유능성과 따뜻함 평가 점수 평균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군집방법은 Hair, Anderson, Tatham 및 Black(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첫 단계는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계수의 평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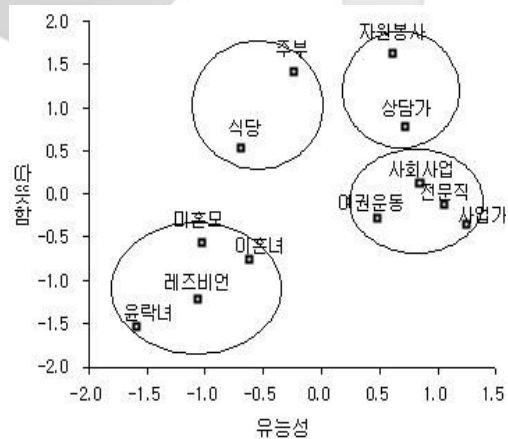


그림 1. 대상 집단들에 대한 유능성과 따뜻함 차원에서의 군집분석 결과

군집1 : 전문직 여성, 여권운동가(페미니스트), 여성 사회사업가, 여성 상담가(여사장)

군집2 : 미혼녀, 레즈비언, 미혼모, 윤락녀

군집3 : 가정주부, 식당아줌마

군집4 : 여성상담가, 여성 자원봉사자

표 2. 군집별 유능성과 따뜻함 평가 평균과 차이검증

집단(N=1540)	유능성(SD)	따뜻함(SD)	$t^1$ (df=1539)
군집1	3.88(.73)	3.09(.62)	36.90***
군집2	2.46(.65)	2.64(.68)	-11.14 ***
군집3	2.94(.63)	3.61(.73)	-32.33 ***
군집4	3.71(.72)	3.79(.76)	-4.95 ***

<sup>1</sup>  $t$  값은 유능성과 따뜻함 간의 차이 검증 값임.

2. 유능성 따뜻함 차원 각각에서 어느 두 군집간의 평균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군집의 수를 결정한 다음, 두 번째 단계에는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하여 군집에 들어갈 집단을 결정하였다. 그림 1은 전체 1540명의 응답 자료를 유능성 평가점수와 따뜻함 평가 점수를 표준화하여 군집 분석한 결과이다. K-평균 분석결과, 계수 증가분을 고려하였을 때 4군집화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군집들은 군집 1(전 문직여성, 여권운동가, 여성 사업가, 여성 사회사업가), 군집 2 (운락녀, 레즈비언, 미혼모, 이혼녀), 군집 3 (가정주부, 식당아줌마), 군집 4 (여성자원봉사자, 여성상담가)로 묶였다. 표 2에 군집별 유능성과 따뜻함 평가의 평균이 나타나 있다. 부록1에 12집단에 대한 유능성, 따뜻함 및 감정온도 평가 평균을 제시하였다.

그림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전통적 여성의 역할을 보이고 지위가 높으며 남성에 대해 경쟁적이라 할 수 있는 군집1(페미니스트, 전문직 여성 등)에 대해서는 유능성은 높지만 따뜻함이 낮게 지각되었고, 지위가 낮고, 비경쟁적이라 볼 수 있는 군집2(레즈비언, 운락녀, 미혼모 등)는 유능성도 낮고 따뜻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반면에 지위가 낮고 전통적 여성의 역할을 보이는 군집3(가정주부 등)에 대해서는 유능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것으로, 지위가 높고 전통적 여성의 역할을 보이는 군집4(여성상담가, 자원봉사자 등)는 유능성과 따뜻함이 모두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군집3과 4는 여성의 특성으로 여겨지는 따뜻함을 특성으로 하는 보다 전통적 여성 집단으로 볼 수 있고, 군집 1과 2는 상대적으로 덜 따뜻한 집단으로 간주되는 상대적으로 보다 비전통적 여성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군집 분석이 여성 하위 집단들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군집

표 3. 군집별 감정온도 평가 평균 SD)

집단(N=1540)	감정온도-남자	감정온도-여자	감정온도-전체
군집1	52.60(16.97)	55.26(14.39)	53.93(15.79)
군집2	41.15(17.08)	40.97(17.26)	41.06(17.17)
군집3	68.95(15.97)	68.17(14.35)	68.56(15.18)
군집4	69.45(17.04)	71.65(15.92)	70.55(16.52)

1, 3 및 4는 따로 군집으로 묶이기는 하지만 그 평가 평균에 있어서 크게 차이나지 않고 모여 있는 데 반해, 군집2는 다른 여성 집단과는 동떨어져 있어, 보통의 여성 집단들과는 매우 다른, 이탈된 집단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여성 집단들에 대한 태도(즉, 감정온도)를 검토해 보면,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사람들은 군집4(자원봉사자 집단)를 가장 좋게 평가하였고, 그 다음이 군집3(가정주부 집단 등)이었으며 이들 두 집단에 대한 태도와는 좀 떨어져서 군집1(페미니스트 등)을 그 다음으로 좋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군집2(운락녀 등)에 대해서는 가장 덜 좋아하였다(모든 집단 간 차이  $p<.01$ ). 이러한 순위는 남자와 여자 평가자에 있어서 동일하였다. 이 군집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의 남녀 평가 차이를 검토해 보면, 군집 1(페미니스트 등)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자들( $M=55.26$ )이 남성 응답자들( $M=52.60$ )보다 유의미하게 더 좋게 평가하였으나( $F(1, 1538)=16.98, p<.01$ ) 군집3(가정주부 등)에 대해서는 남성들( $M=68.95$ )이 여성들( $M=68.17$ )보다 더 좋게 평가하였다( $F(1, 1538)=6.30, p<.05$ ). 군집2(운락녀 등 : 남 41.15, 여 40.97)와 군집4(자원봉사자 등 : 남 69.45, 여 71.65)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여성 집단에 대한 태도

본 연구의 주 관심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서로 다른 여성 하위 집단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토하는 데 있다. HS, BS가 여성 군집들에 대한 태도 평가에 어떻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지의 전반적 형태를 검토하기 위해 HS, BS 각 척도별로 척도 점수의 평균치를 구해 각각 고, 저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각각의 성차별주의 척도점수(2 : 고, 저)와 여성 하위 집단(4 : 군집 1, 2, 3, 4)에 대한 태

도 평가(즉, 감정온도)의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여성 군집 변인은 집단 내 변인이고 척도 점수 변인은 집단 간 변인이었다. HS의 평균값은 2.92였고, BS의 평균값은 3.31이었다. HS 고 집단에는 795명이 포함되었는데 그 평균 점수는 3.34였고, HS 저 집단에는 745명이 포함되었으며 평균은 2.47이었다. BS의 경우, 고 집단에는 779명이 포함되어 그 평균은 3.75였으며, 저 집단에는 761명이 포함되었으며 그 평균은 2.86이었다.

먼저,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하위 집단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적대적 성차별주의(2 : 고, 저)와 여성 하위 집단(4)의 이원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주효과( $F(1, 1538)=21.56, p<.01$ ), 집단의 주효과( $F(3, 4614)=1673.13, p<.01$ ) 및 성차별주의와 집단의 상호작용( $F(3, 4614)=5.79, p<.01$ )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림 2에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태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각 군집별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여성 집단들에 대한 태도 평가가 더 낮았음을 보여 준다( $M=57.30$  대  $59.91$ ). 또한 각 군집에 대한 태도에서는 군집 4(여성상담가, 자원봉사자  $M=70.55$ )에 대한 평가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군집 3(가정주부  $M=68.56$ )으로 군집 4에 대한 태도와 비슷하게 높았으며, 다음 군집 1(전문직 여성, 페미니스트  $M=53.93$ )이었고, 마지막으로 군집 2에 대한 평가(미혼모, 윤락녀  $M=41.06$ )는 중간 점수에 못 미쳤다. 어느 두 군집에 대한 평가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p<.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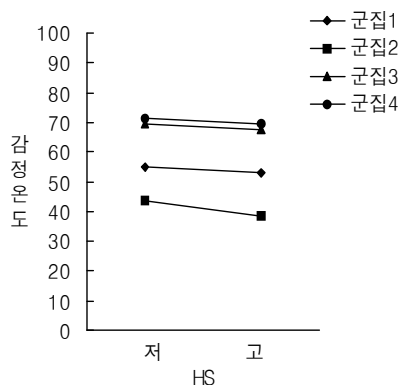


그림 2.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군집간의 상호작용은, 모든 여성 군집에 대한 태도 평가에 있어서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더 낮게 평가하였는데 이 차이는 특히 군집 2에서 두드러졌음을 나타낸다(군집 1 :  $M=54.91$  대  $53.01, t(1538)=-2.36, p<.05$ ; 군집 2 :  $M=43.70$  대  $38.59, t(1538)=-5.91, p<.01$ ; 군집 3 :  $M=69.54$  대  $67.65, t(1538)=-2.44, p<.05$ ; 군집 4 :  $M=71.50$  대  $69.66, t(1538)=-2.20, p<.05$ ). 이러한 결과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여성 집단들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데, 이는 특히 윤락녀, 레즈비안, 미혼모 및 이혼녀 집단(군집 2)에 대한 평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페미니스트 집단(군집 1)을 다른 집단(즉, 가정주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서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고, 저에 따른 여성 하위 집단에 대한 태도 평가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변량분석 결과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주 효과( $F(1, 1538)=1.43, p>.05$ )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군집의 주효과( $F(3, 4614)=1729.08, p<.01$ )와 군집과 BS의 상호작용 효과( $F(3, 4614)=56.91, p<.01$ )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군집의 주효과는 먼저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군집에 대한 감정온도에 있어 군집 4, 3, 1 그리고 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군집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군집 1, 3 및 4에 대한 태도 평가에 미치는 성차별주의의 효과의 방향과 군집 2의 평가에 미치는 태도 평가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즉, 군집 1, 3 및 4에 대해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더 좋게 평가하였으나(군집 1 :  $M=52.79$  대  $55.04, t(1538)=2.80, p<.005$ ; 군집 3 :  $M=67.07$  대  $70.02, t(1538)=3.83, p<.001$ ; 군집 4 :  $M=68.39$  대  $72.66, t(1538)=5.12, p<.001$ ), 군집 2에 대해서는 그 태도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 온정적 성차별주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이 여성 집단들을 더 나쁘게 평가하였다( $M=44.45$  대  $37.75, t(1538)=-7.80, p<.001$ ). 이러한 결과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페미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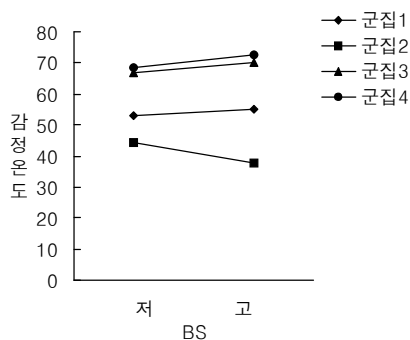


그림 3.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집단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는 결과를 제외하고 가설 2를 지지해 준다.

다음, HS와 BS가 여성 하위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에 있어서 서로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별로 각각 이원변량분석(즉, 각 성차별주의와 여성 집단의 두 변인)을 실시하였다. 전체 표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S 고저의 분류 기준 점수는 평균인 2.92점이었고, BS 분류 기준 점수는 3.31이었다. 남자의 경우 HS 고에는 536명이 포함되었고( $M=3.40$ ) HS 저 집단에는 236명이 포함되었다( $M=2.61$ ). BS 고 집단에는 437명( $M=3.76$ )이 포함되었고 저 집단에는 335명이 있었다( $M=2.91$ ). 여성의 경우 HS 고 집단에는 256명( $M=3.23$ )이 그리고 저 집단에는 509명( $M=2.40$ )이 포함되었다. 여성 BS 고 집단에는 342명( $M=3.75$ ), 그리고 저 집단에는 426명( $M=2.82$ )이 포함되었다.

먼저, 남자의 응답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집단에 대한 태도(즉, 감정 온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 전체 형태에 있어 전체 표집의 경우와 유사하다. 남성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이원변량분석(HS 고저, 군집) 결과, HS의 주효과( $F(1, 770)=10.82, p<.01$ ), 군집의 주효과( $F(3, 2310)=626.43, p<.01$ ), 그리고 HS×군집의 상호작용 효과( $F(3, 2310)=4.09, p<.01$ )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각 군집 별로 HS의 단순 주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남성 HS의 영향은 군집2와 3의 여성 집단에 대한 평가를 더 부정적으로 하게 만드는데(군집 2  $t(770)=-4.61, p<.01$ ; 군집 3

$t(770)=-2.12, p<.05$ ), 특히 군집2에 대해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전체 표집의 경우와 달리 군집4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t(770)=0.74, ns$ ) 군집1에 대해서는 차이의 경향성만을 나타내었다( $t(770)=-1.83, p<.07$ ). 남성 BS가 여성 집단에 대한 태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전체 표집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이원 변량분석 결과, BS의 주 효과( $F(1, 770)=12.54, p<.01$ ), 군집의 주 효과( $F(3, 2310)=750.99, p<.01$ ), 그리고 BS×군집의 상호작용 효과( $F(3, 2310)=21.85, p<.01$ )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각 군집 별로 BS의 단순 주 효과를 검토한 결과, 남성 BS의 영향은 모든 군집에 대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남성의 경우 BS는 군집 1, 3 및 4의 여성 집단에 대한 평가를 더 긍정적으로 하게 만들었지만(군집 1  $t(770)=3.49, p<.01$ ; 군집 3  $t(770)=4.82, p<.01$ ; 군집 4  $t(770)=5.00, p<.01$ ), 군집2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클수록 태도 평가가 더 나빠졌다( $t(770)=-3.04, p<.01$ ). 요약하면 남성에 있어 성차별주의의 효과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여성상당가 등의 집단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 등을 제외하고는 전체 표집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여성 표집에 있어서도 전체적 형태는 전체 표집 혹은 남성 표집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HS나 BS의 영향력이 남성 표집의 경우보다 더욱 약하게 나타났다. 먼저, 여성 HS의 효과에 대한 이원 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HS의 주효과( $F(1, 766)=7.97, p<.01$ ), 군집의 주효과( $F(3, 2298)=863.39, p<.01$ ), 그리고 HS×군집의 상호작용 효과( $F(3, 2298)=6.90, p<.01$ )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군집별로 여성 HS의 단순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여성 HS는 군집1과 군집4에 대한 태도에 아무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군집 1  $t(766)=.18, ns$ ; 군집 4  $t(766)=-1.19, ns$ ). 여성 HS는 그러나 남성 H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집2와 군집3에 대한 평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HS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이러한 여성 집단들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군집 2  $t(766)=-4.47, p<.01$ ; 군집 3  $t(766)=2.15, p<.05$ ). 한편, 여성 평가자들에 있어서는 BS의 영향도 남성들보다 약하게 나타났다. 먼저, 이원 변량분석 결과는 BS의 주효과가 유의미성에 근접하였으며( $F(1, 766)=3.00, p<.09$ ), 군집의 주효과( $F(3, 2298)=1001.09, p<.01$ ), 그리고 BS×군집의

상호작용 효과( $F(3, 2298)=41.52, p<.01$ )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군집별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군집1과 군집3에 대한 평가에는 여성의 BS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군집1  $t(766)=.91, ns$ ; 군집3  $t(766)=.28, ns$ ). 군집2와 군집4에 대한 평가에는 남성 평가자들의 경우와 비슷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여성 BS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군집4의 여성들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t(766)=2.72, p<.01$ ) 군집2의 여성들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t(766)=8.21, p<.01$ ).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여성 평가자들의 경우도 성차별주의의 영향은 남성 그리고 전체 표집의 경우와 전체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다소 약했다.

위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영향에 대한 변량분석으로 이 두 차별주의가 여성 군집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 형태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두 차별주의 점수는 온건한 정도로 상관( $r=.46$ )이 되어 있어 변량분석 결과에 나타난 각 성차별주의의 영향은 다른 성차별주의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각 군집별로 태도(감정온도 평가)와 HS, BS와의 편상관(partial correlation)을 구해 상대의 영향을 배제한

고유한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 분석에서는 각 군집에 대한 유능성 평가 및 따뜻함 평가와 각 성차별주의와의 편상관도 구했으며, 또한 이러한 상관을 남자, 여자 및 전체 별로 구하였다. 그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에서 보면, 변량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영향을 제외하고 나서도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전반적으로 모든 군집에 대한 따뜻함 평가, 유능성 평가 및 감정온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단지 군집2에 대한 유능성 평가와의 상관만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영향을 배제하고 나서도 군집1, 3 및 4에 대한 모든 평가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군집2에 대한 유능성, 따뜻함 및 감정온도 평가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남녀를 구분하여 편상관을 구해 본 결과, 남성들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점수는 군집4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다른 군집의 여성들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군집2에 대한 태도와의 부적 상관이 특히 더 강했다. 남성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 군집들에 대한 정적 태도와 상관이 있었으나, 군집2에 대한 태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표 4. 적대적 성차별주의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각 군집별 감정온도, 유능성, 따뜻함 평가 간의 편상관( $r$ )

	남 자		여 자		전 체	
	HS	BS	HS	BS	HS	BS
<b>군집 1</b>						
감정온도	-.12***	.19***	-.09*	.07*	-.14***	.14***
유능성	-.11**	.21***	-.16***	.16***	-.15***	.18***
따뜻함	-.13***	.23***	-.04	.11**	-.11***	.18***
<b>군집 2</b>						
감정온도	-.17***	-.03	-.07	-.21***	-.10***	-.12***
유능성	-.08*	-.05	-.09*	-.15***	.03	-.10**
따뜻함	-.17***	-.01	-.07	-.13***	-.12***	-.07**
<b>군집 3</b>						
감정온도	-.14***	.26***	-.13***	.10**	-.13***	.18***
유능성	-.10**	.17***	-.01	.10**	-.05*	.14***
따뜻함	-.08*	.26***	-.07	.12***	-.07**	.19**
<b>군집 4</b>						
감정온도	-.05	.25***	-.14***	.15***	-.13***	.20***
유능성	-.12***	.24***	-.08*	.14***	-.12***	.19***
따뜻함	-.11***	.27***	-.12***	.21***	-.14***	.24***

주. \* $p<.05$ , \*\* $p<.01$ , \*\*\* $p<.001$

않았다. 그러나 군집2의 여성 집단들을 구분하여 각각 상관을 구해 본 결과, 남성들에 있어서도 윤락녀 집단에 대한 태도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r=-.07, p<.05$ ). 또한 남성 BS는 가정주부 집단과 상담가 집단 등 보다 전통적인 여성 집단들에 대해 페미니스트 집단에 대해서보다 더욱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여성들에 있어서는 HS와 군집 1에 대한 평가간의 부적 상관계수가 남성보다 다소 약하게 나타났다. 여성 HS는 또한 군집 2에 대한 태도와는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보였으며 그러나 군집 3과 4에 대한 태도와는 보다 강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여성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군집 1, 3 및 4의 여성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남성들보다 다소 약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군집 2의 여성들에 대한 태도와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참고로 부록 2에 12 여성 집단에 대한 감정온도와 HS, BS 각각의 편상관이 남자, 여자 및 전체별로 나타나 있다

## 논 의

본 연구 결과는 예상대로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특히 비전통적 여성 집단에 대해 전통적 여성 집단에 대해서보다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와는 달리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보다 정상적' 여성 집단들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대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성차별주의로서 여성 집단들에 대해 구분되는 태도를 취하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남성 중심의 제도나 권위에 도전하거나 부인하는 여성들에 대한 처벌적·적대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고 한편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이러한 남성 중심의 체제와 시각에 부합되는 여성들에 대한 보상적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가 지적해 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취하도록 만드는 고유한 영향은 특히 남성들에 있어 미혼모, 이혼녀, 윤락녀 및 레즈비안 등의 비전통적 여성 집단에 대한 평가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긍정적이고 우월한 특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보다 우위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인식(즉, 적대적 성차별주의)이 강한 남성일수록 비전통적 여성 집단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고 비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기존의 남성 중심의 결혼 제도나 성 윤리에 위배되거나 도전하는 듯 보이는 여성들에 대해 더욱 그러함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와 아울러 남성들에 대한 편상관 분석에서 군집 4(여성 상담가 집단)에 대한 태도와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는, 남성들에 있어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특히 비전통적인 행동을 보이는 여성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지적하여 본 연구 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한편, 예상과는 달리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가정주부 등의 보다 전형적인 여성 집단에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를 취하였으며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페미니스트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비슷한 정도였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는 반대로 여성 집단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가 보여 주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들이 보다 순수하고 도덕적이며 한편으로 연약해서 남성들의 사랑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 여성 인식이다. 본 연구에서 온정적 성차별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게 비해 가정주부, 여성상담가 집단 그리고 페미니스트 집단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인 태도와 좋아하는 감정을 보였다(가설 2-1 부분 지지). 그러나 그렇다면 과연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무엇이 '성차별주의'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대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가정주부나 여성자원봉사자 등의 보다 전통적 여성 집단들뿐만 아니라, 여사장이나 페미니스트 등의 비전통적이고 기존의 질서와 규범에 도전적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미혼모, 윤락녀, 이혼녀 및 레즈비안 등 기존의 결혼이나 성 규범에 어긋나는 여성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였다(가설 2-2 지지). 이러한 결과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역시 성차별주의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들을 보다 순수하고 도덕적이라고 규정하므로 이에 어긋나는 성적 태도와 행동, 그리고 결혼 관련 행동들을 보이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Abrams, Viki, Masse와 Bohner (2003)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은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은 여성들이 성적으로 보다 더 순결하고 도덕적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상호성에 의한 성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강간의 상황(예를 들어,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여성이 무언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결과에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 상황에 대해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는 희생자를 비난하는 책임 귀인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윤락녀, 미혼모, 이혼녀 및 레즈비안 등 소위 말하는 '순결하고 순수한' 성 윤리 및 성 도덕에 어긋나 보이는 여성 집단에 대해 다른 '정상적' 여성 집단들에 대해서와는 달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역시 '성차별주의'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을 남성들보다 더 순수하고 성적으로 더 도덕적이라고 찬양하는 이면에는 그렇지 않은 것같이 보이는 여성들에 대한 더 큰 적대감과 배타의식이 도사리고 있고 이에 따라 그러한 여성들을 '더욱 부도덕하여 남성들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여성들로 매도하게 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편상관 분석에 의하면 이와 같이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군집2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고유상관관계를 보다 뚜렷이 가지는 것은 주로 여성 평가자들의 경우에서 그러했다는 결과이다. 남성들에 있어서도 부정 상관이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윤락녀에 대한 태도에서만 그러하였다. 이 결과는 여성들 중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성적으로 더 도덕적이고 더 정숙한 데에 여성들의 가치와 우월성이 있으며 또 그러할 때에만 남성들의 보호와 칭송이 따르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즉, 온정적 성차별주의자)이, 여성에게 요구되는 기존의 성 규범에서 이탈된 듯이 보이는 여성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렇게 볼 때 온정적 성차별주의 여성들은 기존의 남성중심의 성규범, 가치 및 사회 체제를 내면화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체제와 규범을 앞장서서 지키고 수호하는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적 행태 혹은 결혼 행태에 있어 '정상적'이지 않은 여성들에 대한 이들의 혐오와 부정적 태도는 소위 말하는 '여여 갈등'으로 나타나게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성편견이 높은 사회일수록 여성들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해 보다 수용적이 된다는 선행 연구(Glick 등, 2000)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19개국의 남녀의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주의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남성들의 성편견이 심한 문화일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있어서의 성차이가 줄어들었으며, 한편 적대적 성차별주의 점수의 성차이는 보다 커졌다. 즉, 성편견이 심한 문화의 여성들일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거부하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수용하고 내면화하여 기존의 남성 중심의 사회 체제에 적응하고 협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같이 성편견이 강한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성적 태도와 행동에 있어 '일탈적'으로 보이는 여성들에 대한 태도에 보다 강하게 부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하위 집단들(여성 상담가 집단 제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표4 편상관관계수 참조). 이러한 후자의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받아들이는 일부 여성들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이 남성들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아마도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들의 자아존중이나 이득에 반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 결과 여성들에 있어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성적으로 '일탈적인' 군집2에 대한 태도에 보다 강하게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남성들에 있어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군집1과 군집2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쳤음은 우리 사회와 같이 성편견이 상대적으로 보다 강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보다 받아들이고 내면화하여 적응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남성 중심의 사회 체제에 순응하고 협력하게 됨을 보여 준다. 한편, 우리 사회의 남성들에 있어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보다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보다 뚜렷이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특히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효과가 여성들에 있어 뚜렷이 나타난다는 결과는 안미영, 김혜숙, 안상수 (2005)의 연구에서도 여성 평가자들의 온정적 성차별주

의가 높아질수록 정서지향적(즉, 민주적) 여성 지도자를 과제지향적(즉, 전제적) 여성지도자보다 더 좋아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결과에서도 지지된 바 있다. 남녀 차이에 대한 이러한 흥미롭고 의미있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욱 세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예상대로 가정주부나 여성 자원 봉사자 등 보다 전통적 여성 집단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취하였으나, 한편 페미니스트, 전문직 여성, 여성 사업가 혹은 여성 사회사업가 등의 유능한 비전통적 여성 집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후자의 결과는 예상한 바와 다르다. 페미니스트 등의 집단에 대한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영향도 예상대로 부정적 방향으로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전통적 여성 집단-가정주부 등에 대한 평가보다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가설과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예컨하면,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클수록 페미니스트 집단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되었으므로), 또한 연구 가설과 완전히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페미니스트나 여성 전문직 등의 비전통적인(즉, 유능하지만 덜 따뜻한) 여성 집단을 다른 여성 집단보다 특별히 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고, 한편 온정적 성차별주의도 이 비전통적 여성 집단들에 대해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만큼(남성들의 경우에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페미니스트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고유 영향이 보다 전통적 여성 집단에 대해서보다 다소 약하게 나타났으나)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전문직 여성이나 페미니스트 여성 집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혹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다른 여성 집단에 대해서와 특별히 구분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여러모로 고찰해 볼 수 있겠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어 전문직 여성(여성 사업가 및 여성 사회사업가 등)이나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더 이상 비전통적 여성 집단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여성 집단으로 간주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여성 군집에 대한 감정온도(즉, 태도)의 평가 평균이 중간 이상(즉 54/99)이라는 점에서도 일면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의 실태(예를 들어, 여성 리더의 심각한

부족 등)나 여러 일상생활의 일화들이 별로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또한 전문직 여성 군집에 대한 평가가 중간 점수 이상이었지만 가정주부 집단(즉, 69/99)이나 여성상담가 집단(71/99)에 비해서는 상당한 차이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첫 번째 가능성보다 더욱 그럴듯한 해석은 본 연구의 태도 측정이 반응 편파를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정교하지 못하거나 정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나 전문직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적대적 성차별주의자의 적대감은 억압되고 한편 온정적 성차별주의자의 긍정적 태도는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편파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정확한 것이어서, 적대적 성차별주의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사람들의 태도 평가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대로이지만, 적대적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더욱 뚜렷한 구분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한 여성에 대한 중요한 선택이나 평가나 결정을 할 때에 그리할 것일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감정적 차원이 아닌 행동이나 선택의 차원에서는 적대적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더욱 뚜렷하게 구분되는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은 진보적이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나 막상 회사 동료나 이성 관계의 파트너로 관계를 맺기는 꺼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온정적 성차별주의 문항들이 우리 사회의 남성들에게는 지나치게 '여성우호적'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선천적인 부드러움은 남성이 따라갈 수 없다' 등의 문항에 찬성하는 남성들은 우리 문화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여성 선호적인 남성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성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은 페미니스트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표명했으며 윤락녀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능성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밝히기 어렵고, 다만 후속 연구에서는 평가우려 등의 반응편파가 배제될 수 있는 측정 방법 - 예를 들어, 내현적 태도 측정(즉 IAT 등) - 을 사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어떠한 집단(예 : 미혼모)에 속해 있는 한 여

성에 대한 고용이나 인간관계 의사 등의 행동이나 중요한 선택과 관련된 추정을 포함시켜, 이에 미치는 적대적 혹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영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특히 남성)와 온정적 성차별주의(특히 여성)는 모두 윤락녀, 미혼모, 레즈비안 및 이혼녀 등의 여성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상관을 나타내었다(이 집단 각각에 대한 감정온도와 HS, BS간의 편상관은 부록 2를 참조할 것).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두 성차별주의가 윤락녀, 미혼모 집단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서로 다른 이유에 기반 할 가능성이 크다. 즉, 적대적 성차별주의자는 기존의 남성 중심의 성 질서나 결혼 제도 등에 반하거나 이탈하는 여성들에 대한 적대감이나 남성 권위주의 때문에 이 집단에 대해 부정적이 되는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는 여성의 성적 도덕성이나 순수성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기대와 요구 때문에 이 여성들에 대해 부정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후속 연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혼모 혹은 이혼녀 등의 일화를 제공하고 그 행동에 대한 해석이나 원인 귀인 등을 검토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다른 과정과 매개 요인에 의해 동일한 행동이나 결과-미혼모, 이혼녀 집단에 대한 부정 평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현상은 실상 Abrams 등(2003)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그들의 연구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적대적 성차별주의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도 실상 남성이 강하게 행동해 주기를 바랬다' 라는 해석을 함으로써 그러했고,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는 이 상황을 '여성이 강간을 원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정숙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즉, 강간)이 일어났다고 해석함으로써 그러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집단들을 따뜻함과 유능성의 차원에서 하위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성차별주의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따뜻함도 낮고 유능성도 낮은 집단으로 포함시킨 집단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성 규범에 의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집단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나타난 남성 HS와 여성 BS가 커질

수록 이 집단들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현상이 '성행동'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극단적으로 유능성 따뜻함이 낮은(즉, 극단적으로 나쁜) 여성 집단들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커질수록 이들에 대해 더욱 부정적 태도로 될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어렵다. 어쨌든 이러한 대안적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능성이 낮고 따뜻함도 낮은데 '성적 이탈성'과는 관련없는 집단들-예를 들어, 여성 유괴범-을 포함시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개념과 구분이 여성에 대한 성차별주의에 대한 보다 새롭고 정교한 이해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여성 차별주의는 더 이상 무작정한 적대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는 더욱 교묘하고 미묘하게 변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동안의 여권 운동과 민주화로 인하여 맹목적인 여성 차별주의보다는 더욱 교묘한 형태로 포장된, 혹은 어쩌면 성차별주의자 자신들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차별주의의 형태로 변질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성차별주의의 영향과 그 과정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적대적 혹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어떠한 여성 집단에 속한 한 개인 여성의 일상적 행동(예를 들어, 이성 관계나 성관계 혹은 일 관계)에 대한 평가와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은 무엇인가? 이와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적대적 혹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남성 혹은 여성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는가, 과연 여성들이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큼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도 의미있다. 실상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들(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5)이 일부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적 태도를 접하는 것이 과연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의 남성중심의 질서나 문화를 더욱 수용하도록 할 것인가, 혹은 이러한 성차별주의적 논리와 태도를 접하는 것이 사람들의 태도를 더욱 성차별주의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있어서 남녀 차

이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형태의 성차별주의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그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 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양희, 정경아 (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1), 23-44.
-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5).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의 심리 과정 :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연구비 지원 연구보고서*.
- 안미영, 김혜숙, 안상수 (2005).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전제/민주 방식의 여성 지도자에 대한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2), 17-38.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2), 39-66.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5, 82-92.
- Abrams, D., Viki, G. T., Masser, B., & Bohnert, G. (2003).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and stranger rape :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in victim blame and rape procl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11-125.
- Fiske, S. T., Cuddy, A.,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78-902.
- Glick, P., Diebold, J., Bailey-Werner, & Zhu, L. (1997). The two faces of Adam : Ambivalent sexism and polarized attitudes toward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1323-1334.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Glick, P., & Fiske, S. T. (2001a). An ambivalent alliance :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 109-118.
- Glick, P., & Fiske, S. T. (2001b). Ambivalent sexism.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3, pp. 115-188). Thousand Oaks, CA : Academic Press.
- Glick, P., Fiske, S. T., Mladinic, A., Saiz, J. L., Abrams, D., & Masser, B., et al. (2000). Beyond prejudice as a simple antipathy :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cross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763-775.
- Hair, J. E. Jr.,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NJ : Prentice-Hall.
- Jost, J. T., & Kay, A. C. (2005). Exposure to benevolent sexism and complementary gender stereotypes : Consequences for specific and diffuse forms of system jus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498-509.
- McConahay, J. B. (1986). Modern racism, ambivalence, and the Modern Racism scale. In J. F. Dovidio & S. L. Gae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pp. 91-125). San Diego : Academic Press.
- Spence, J. T., & Helmreich, R. (1972).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2, Ms. #153.
- Swim, J. K., Aikin, K. J., Hall, W. S., & Hunter, B. A. (1995). Sexism and racism : Old-fashioned and modern prejudi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99-214.

## **The Effect of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on the Attitudes Toward Female Subgroups**

**Hai-Sook Kim**  
Ajou University

**Sangsu Ahn**  
Kwangun University

**Miyoung Ahn**  
Sila University

**Jae-hong Ko**  
Kyungnam University

**Suni Lee**  
Ajou University

**Incheol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on the attitudes towards female subgroups. 1540 respondents(males 772, females 768) evaluated 12 female groups in terms of the trait characteristics of ability and warmth, and attitudes(measured by feeling thermometer scales) on a survey questionnaire. Four clusters(i. e., professional women, prostitutes, housewives and female counselors) of females subgroups were obtained on the basis of the ability and the warmth rating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hostile sexism was related to the negative attitudes toward female subgroups who were considered as rather nontraditional by the society, compared to the traditional subgroups. This tendency was prominent in male respondents. On the other hand, benevolent sexism was related to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 female subgroups of career women, housewives and female counselors, while it was associated with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prostitute subgroup. The latter effect was stronger among female respondents.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benevolent sexism was a new form of sexism, which differed from the traditional meaning of sexism.

**Key words : hostile sexism, benevolent sexism, attitudes toward female subgroups, attitudes toward female sexual deviants**

원고접수 : 2005년 7월 10일  
심사통과 : 2005년 8월 11일



## 부 록

부록 1. 12개 여성하위집단에 대한 유능성, 따뜻함 및 감정온도 평가의 평균(SD)

집 단	유 능 성	따 뜻 함	감 정 온 도
가정주부	3.12(.77)	3.79(.88)	74.28(17.75)
이혼녀	2.79(.75)	2.77(.78)	44.64(20.38)
여성 상담가	3.75(.79)	3.54(.83)	63.60(19.26)
전문직 여성	4.00(.88)	3.09(.74)	55.30(18.55)
여성 자원봉사자	3.67(.81)	4.04(.89)	77.50(18.24)
식당 이춤마	2.77(.73)	3.43(.82)	62.84(18.88)
레즈비언	2.48(.92)	2.53(.90)	38.88(22.18)
여권운동가(페미니스트)	3.57(.89)	3.02(.85)	50.56(20.98)
미혼모	2.51(.83)	2.85(.87)	47.13(22.32)
여성 사회사업가	3.87(.85)	3.22(.79)	57.07(20.22)
윤락녀	2.08(.91)	2.41(.92)	33.60(23.73)
여성 사업가(여사장)	4.09(.89)	3.04(.82)	52.78(20.87)

부록 2. 12 여성 하위집단에 대한 감정온도 평가와 HS, BS와의 편상관( $r$ )

집 단	남 성		여 성		전 체	
	HS	BS	HS	BS	HS	BS
가정주부	-.08*	.21***	-.11**	.12***	-.12***	.17***
이혼녀	-.14***	-.04	-.04	-.15***	-.11***	-.09***
여성 상담가	-.01	.16***	-.10**	.14***	-.09***	.14***
전문직 여성	-.09*	.18***	-.04	.08*	-.08**	.13***
여성 자원봉사자	-.08*	.28***	-.14***	.12***	-.14***	.20***
식당 이춤마	-.15***	.22***	-.09**	.05	-.09***	.13***
레즈비언	-.15***	-.02	-.01	-.18***	-.08**	-.10***
여권운동가(페미니스트)	-.12***	.16***	-.12***	.11**	-.17***	.13***
미혼모	-.12***	.05	-.10**	-.12***	-.09***	-.05
여성 사회사업가	-.11**	.16***	-.10**	.02	-.12***	.09***
윤락녀	-.11**	-.07*	-.06	-.20***	-.04	-.14***
여성 사업가(여사장)	-.05	.11***	-.01	.02	-.06*	.07**